

“카드 만들면 20만원 드려요”... 카드발급 고객 쟁탈전 치열

신규·휴면 회원 대상 프로모션 활발
롯데카드, 선착순 1500명 신청 마감
한방 재테크로 알뜰 재테크족 주목



롯데카드는 '라이킷 올(LIKIT ALL)카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16만원 이상 결제 시 16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했다. /롯데카드

정부가 코로나19 상생소비지원금과 관련해 카드업계의 과도한 고객 유치 마케팅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지만 현장에서 고객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신규·휴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카드발급 프로모션이 확대되는 형국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의 현금 환급성 이벤트가 확산하면서 캐시백 금액도 고공행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시백 이벤트는 보통 행사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발급카드로 결제할 경우 정해진 일자에 해당 금액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원선까지 올라가는 등 업체 간 경쟁이 뜨거운 모습이다.

롯데카드는 지난 24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라이킷 올(LIKIT ALL)카드' 발급고객을 대상으로 16만원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객이 카드발급 후 16만원 이상을 결제하면 오는 10월 말 16만원을 다시 돌려주는 이벤트로 선착순 1500명 신청이 빠르게 마감될 정도로 주목받았다. 다만 혜택을 받으려면 직전 6개월간 롯데 개인 신용카드 결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롯데카드는 지난 5월엔 '로카머니(LOCA MONEY)' 발급 이벤트로 30만원 이상 카드 이용 시 20만원 캐시백 혜택을 내걸었다. 올해 등장한 카드발급 프로모션 중 가장 큰 규모다.

카드 프로모션은 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업계 상위

권인 KB국민카드는 지난 8월 '가온올림카드'로 15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에게 15만원 캐시백을 제공했으며, NH농협카드는 9월 한 달간 '올바른 FLEX카드' 발급고객을 대상으로 10만원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했다.

20만원대까지 상승한 카드 캐시백 프로모션은 알뜰 재테크족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온라인 재테크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정보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이벤트 마감 시점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특히 조건만 채우면 100%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예·적금 및 주식 투자보다 확실한 '한 방 재테크'로 주목받고 있다. 더 높은 환급금액을 제시하는 곳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행사 때가 아니면 카드를 만들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올 정도다.

다만 캐시백 규모가 커지면서 경제적

이익 제공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카드사의 회원모집과 관련해 연회비의 10% 이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캐시백 프로모션이 여신업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용유도' 마케팅에 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행사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해야 하지만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이용유도 마케팅에 가깝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실적이 중요한 특정 시점이나 연말에 캐시백 프로모션이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채원 마련은 각 업체별 내부사정에 따라 다른 만큼 향후 캐시백 규모가 더 확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소원 기자 think@metroseoul.co.kr

‘건전성 빨간불’ MG손보, 자본확충 과제

RBC비율 100% 미만 '유일'
민원건수 55.81% 급증

MG손해보험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본확충과 포트폴리오 개선을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53개 보험사의 평균 지급여력(RBC) 비율은 260.9%로 전분기(255.9%) 대비 5%포인트(P) 증가했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RBC비율이 높을수록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의미다.

특히 손보사의 RBC비율은 238.9%로 전분기 224.7%와 비교해 14.2%p 높았다. 손보사 별로는 서울보증(418.8%)이 가장 높았고 AIG손보(408.8%), 삼성화재(322.4%)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국내 보험사 중 MG손보만 유

일하게 RBC비율이 보험업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MG손보의 RBC 비율은 지난 1분기 103.5%에서 2분기에 들어서 97.0%로 떨어졌다.

여기에 같은 기간 민원건수는 크게 증가해 업계의 우려는 더해졌다. 올 2분기 MG손보의 민원건수는 201건으로 1분기와 비교해 55.81% 급증했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올해 중으로 유상증자 일정을 마무리 한다.

앞서 MG손보는 올해 상반기 중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유상증자를 신속히 진행해 재무건전성을 안전화 시키겠다는 복안이다.

MG손보 관계자는 "9월까지 유상증자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지연된 상황"이라며 "자본확충에 대한 개연성이나 필요성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품 포트폴리오 리뉴얼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앞서 MG손보는 지난 2013년 그린손보의 사명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했다. 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트렌디한 장기보험을 판매해 상품 포트폴리오를 개선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장기보험이란 3년 이상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유지하는 상품을 말한다.

'아이조아 어린이보험' 등의 판매도 개시한다.

MG손보 관계자는 "MG손보로 회사가 바뀌고 난 뒤 상품 포트폴리오 리뉴얼 방향이 변화되고 있다"며 "건강 관련 상품. 장기보험 중에서도 트렌드에 맞는 어린이, 운전자 등의 상품을 계속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MG손해보험 전경



(왼쪽부터) 이창철 대정농협 조합장,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위성곤 국회의원, 장만희 사령관 농산물 꾸러미 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금융지주

농협금융, 제주지역 '농산물 꾸러미' 나눔

복지시설에 1500개 꾸러미 전달

농협금융이 지역사회와 농업·농촌을 위한 꾸러미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농협금융은 지난 1일 손병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농협 제주영업본부에서 창립60주년 기념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 나눔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만희 구세군 사령관, 이창철 대정농협 조합장, 강승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문상철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장 등 농협 임직원이 함께 참

석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농협 즉석밥, 사골곰탕, 포포면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를 손수 포장해 트럭에 실었다. 1500개의 꾸러미 상자들은 제주시 소재 복지시설 곳곳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손 회장은 "꾸러미 나눔을 통해 농협금융의 선한 영향력이 전국에 전파되기를 바란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의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농협금융은 앞으로도 농업·농촌과 지역사회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소원 기자

“주식 신용거래시 감당 가능한 범위 내 거래해야”

금감원 Q&A

Q. 평소 주식에 관심이 많았지만 여유자금이 부족해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주식신용거래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 혹시 주식신용거래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지난해부터 주식신용거래가 급증했지만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반대매매가 증가해 투자자의 손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식신용거래를 통한 이른바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 주가가 상승할 때는 추가 이익이 발생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때는 투자 손실이 발생할뿐 아니라 추가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주식신용거래 시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 미달로 인해 반대매매 물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추가적인 추가금입으로 이어져 투자손실이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 하락 시 신용거래로 인한 추가손실 규모를 평가해 보고 자신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용거래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증권사 신용거래용 자상품은 은행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으며, 만기가 짧아 만기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용도 및 투자 계획에 맞는 여러 금융상품의 거래조건을 비교해 본 뒤 보다 유리한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해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담보를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해 담보비율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추가담보는 통상 다음 영업일까지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납입 기간 중 주가가 추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납입할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증권사는 문자메시지, 전화,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추가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증권사에 통지해 추가담보 요구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석 기자 ysl@

우리銀 유튜브 언택트 세미나 개최

거시경제 전문가와 대담 형태

우리은행은 오는 6일 오후 5시 유튜브 채널에서 언택트 세미나 '우리 Wealth LIVE'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위드코로나 시대의 금리인상, 통화정책 정상화와 금융시장 전망'으로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거시경제 전문가가 참석해 진행자와 함께 대담 형태로 진행된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글로벌연구실의 허문중 연구위원이 위드코로나 시대 도래와 함께 금융시장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나아가 금융시장 전망도 제시한다.

최근 백신접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는 등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문가와 함께 금융시장 핵심 이슈와 체크 포인트를 꼼꼼히 점검한다.

이번 세미나 참여 희망자는 오는 5일까지 우리WON뱅크 '혜택·이벤트' 메뉴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에게는 세미나 접속 유튜브 주소가 발송된다. 또한 당일 우리은행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면 누구나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연말까지 주요 금융시장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